

# 서남동에 첨단인쇄단지 조성 지역 발전 꾀할 것

광주시 동구청(구청장 유태명)이 지역 인쇄업체가 몰려있는 서남동 일대를 첨단 인쇄출판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역 인쇄업체들을 잔뜩 고무시키고 있다. 특히 전남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염려하던 지역 인쇄인들에게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03년에 착공에 들어가 2004년에 완공될 첨단인쇄출판단지에는 특화타운이 건설되며 우선적으로 50여개 업체가 입주할 전망이다. 특히 동구청은 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남로에 위치할 '디자인센터'와의 협력도 도모할 계획이다.

유태명 구청장을 만나 사업추진 동기와 추진 방향들을 들어보았다.

△구청장님의 「첨단인쇄·출판단지」 조성 계획에 지역 인쇄인들은 물론 전국의 많은 인쇄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쇄·출판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주십시오.

-전남도청의 이전 문제 등으로 광주 도심권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영세성·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서남동 일대의 인쇄·출판거리도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3기를 맞이하여, 광주의 중심구인 동구가 옛 명성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인쇄 물량 90%를 차지하고 있는 서남동 일대에 「첨단인쇄·출판단지」조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첨단인쇄·출판단지」조성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서남동 일대는 호남의 대표적인 인쇄·출판업체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에 머물고 있어 첨단화,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50개 선도업체를 선정하여 ▲특화지구 조성 및 특화타운(빌딩) 조성 ▲업체간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인쇄·출판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25억원, 기타 25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계획은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 도심권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9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채택됐고, 기획예산처에서도 1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인쇄업체의 상당수가 4인 미만의 영세업체입니다. 「첨단인쇄·출판단지」정착을 위해선 열악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 인쇄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 이미 지난 8월중에 이수만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인쇄업체 대표들과 광주 동구 부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인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돼 세부 사업 추진계획과 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지난 2000년 3월 '금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고시를 근거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 300여개 인쇄·출판업체가 밀집한 서남동 일대를 금남벤처밸리와 연계해 인쇄·출판 집적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개별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이와 같은 종합적인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영세업체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남도청 이전이 지역 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져 지역 인쇄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6.13 지방선거 당시 "확실한 대안이 없는 전남도청 이전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디자인센터 건립' '첨단인쇄·출판단지 조성' '충장로·금남로의 상권 회복' '벤처 금남밸리의 육성' '문화특구 지정 추진을 포함한 문화 예술산업의 육성' 등 도심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가 우선 유기적으로 행정력을 결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차원의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출판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익 증대는 이와 같은 주변 여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도심 공동화 극복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이 곧 인쇄·출판업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로의 요충지인 구(舊)한국은행 부지에 '디자인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의 인쇄·출판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 교육기관에 인쇄관련 학과가 전문해 많은 지역 인쇄인들이 전문인력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쇄 전문인력 육성 방안이 있으신지요.

- 잘 아시다시피 인쇄 기술인력은 '도제식(徒弟式)'에 의한 전문가 배출이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실무 감각을 중시하는 분야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만, 이제 최첨단의 고급 인쇄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만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전문학과나 교육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출판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자인 분야 등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의 조선대 디자인 특성화 사업단, 광주대 디자인 혁신센터 등과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고급 인력을 업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를 최초로 발명한 인쇄 종주국입니다. 따라서 「첨단인쇄·출판단지」가 조성되면 인쇄문화를 대내 외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단지 내에 '특화타운(빌딩)'이 조성되면 이 공간 일부에 인쇄 관련 전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족의 찬란한 인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 홍보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광주의 서남동 일대에 호남권의 인쇄·출판업계의 어제와 오늘이 숨쉬고 있고, 인쇄·출판인들의 슬한 애환이 서려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와 같은 역사를 기념하고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